

조기 대선 가시화... '김영록 출마' 민주당 흥행 카드 되나

김영록 전남지사 "호남 후보로 경쟁...민주당 파이 키우겠다"

이재명 대표 "다양한 목소리·활발한 토론...백화제방 꿈꾸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왔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이재명 대표와의 '건전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당내 경선에 뛰어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가능성만 내비쳤던 김 지사가 이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당내 경쟁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 잠룡들의 조기 대선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 기자들을 만나 "정치 세력 중 호남을 빼놓고 이렇게 침체한 정치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해보고 후회하더라도 해가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가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양극단으로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누적되면서 악화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재창조해야 한다. 국가 재창조 정치 리모델링, 정치를 대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호남이 느꼈던 소외감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의 건전한 경쟁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건전하게 서로 정책 대결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것"이라며 "커진 파이를 가지고 본선에 임하고, 경선에서 이긴 민주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출마 결심 배경으로 전남 현안 사업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남 첨단산업 유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순항할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과 분산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전남에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수많은 뜻이 흐드러지게 피는 '백화제방'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다"면서 당내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非 이재명)계 인사들의 '이 대표 일극체제' 지적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극단과 이단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며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 경제, 안보, 민주주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 지지해줄 것이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영국의 작가 포스터의 "우리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이유로 환호한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는 말을 인용한 뒤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생산적 통합, 발전적 성장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우리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등이 잠재적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총리와 김 지사, 김 전 의원 등은 조만간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덧붙임'을 청취하고 세 걸잡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한양관에 코스피 등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에, 코스닥은 24.49포인트(3.36%) 내린 703.80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 전쟁에 ... 코스피 '급락'·환율 '급등'

코스피 외인 투매에 2.5% ↓
환율은 1500원대 '눈 앞'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코스피가 2.5% 넘게 급락해 2,450대까지 밀려났다. 환율은 14.5원 오름 1467.2원으로, 1500원을 눈앞에 뒀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해 하락 폭을 빠르게 키웠고, 장중 3.17% 밀려 2437.6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오후 3시 55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과 기관이 각각 8692억원, 3730억원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세를 견인했다. 개인은 1조1262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529억원 순매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

가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에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요동친 것이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을 주요 수출 거점으로 삼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원 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까지 뛰어올랐다가 전 거래일보다 14.5원 상승한 1467.2원까지 회복했다. 주간 거래 증가 기준으로 지난달 13일(1470.8원) 이후 3주 만에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

'절차적 흠결' 지적 의식한 듯
'결정 안 따르면 위헌·위법'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의 선고를 연기했다. 이와 맞물려 특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무기 연기됐다.

<관련기사 3면>

헌재는 3일 이 사건 선고를 2시간여 앞둔 낮 12시께 변론재개와 선고 연기를 공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여부를 논의한 결과 권한대행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최 대행은 헌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해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재판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했다.

지난달 31일 헌재는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바로 당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하자 이번에는 수용했다.

헌재의 결정은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사유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형사재판 20일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를 앞두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빼앗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균 전 대령 사건을 모두 배당받아 심리하고 있다.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5 | 도상: 5.4, 고속도로: 4.6 |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1 | 도상: 4.3,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